연중 제 26 주 일
(군 인 주 일)

기도서 P. 444 A해
제1독서 (에 제 18, 25— 28절)
제2독서 (필 리 2, 1— 11절)
복 음 (마 태 21, 28— 32절)

숲정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이 수 헌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③5098)

□ 제3차 순교자 현양대회 강론(요약) □

오늘을 사는 순교의 의미

김 재 덕 주 교

〈1〉 순교자 현양대회

오늘은, 주님의 용사가 되어 그 이름을 찬란히 빛낸 우리 순교복자들을 현양하고, 그들이 쌓아올린 유업과 공적을 기리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자 하여 3번째 갖는 우리 교구의 순교자 현양대회입니다.

교회사를 들추어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는 곳마다 미움을 받았고, 성장하는 곳마다 멸시를 당하였읍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마치 땅에 심겨진 한 알의 씨앗이 거름을 먹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 복음의 씨앗은 다시 새로운 피, 즉 순교자들의 피를 거름으로 하여 더욱 생기를 얻고 힘차게 자라나 오늘의 세계적인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읍니다.

특히 한국 천주교회사를 보면, 100여년동안에 걸친 모진 박해로 말미암아 순교의 월계관을 쓰신 분들은, 복자위(位)에 오르신 103위 외에도 수만을 넘고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은,

① 남의 도움으로가 아니라, 우리 민족 스스로가 복음을 받아, 우리 힘으로 가꾸어 나간 사실로 부터 시작.

② 100여년 박해 중에서도 거의 60여년이라는 오랜 기간동안은 성직자없이도 우리 한국교회는(평신도들로써) 순교의 피를 뿌리며 자라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 번 뿌려진 복음의 씨가 우리 조상인 순교자들의 피를 거울삼아 다시 움트고 자라서 훌륭한 열매를 맺고 승리를 가져온 것은 참으로 장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순교자들의 영예로운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자랑스러운 것이 못됩니다. 참으로 그 영예로운 후손들이라면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그 믿음을 위해서는 귀중한 생명까지라도 사양치 않던 조상들의 순교정신을 살아야만** 하겠읍니다. (참조 ; 마태오 3장 8—9절)

〈2〉 교회와 박해

교회는 왜 창설 당시(그리스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박해를 받아오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서부터 찾아야만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지상에서의 하느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사명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명과 같아서 **이 세상에서 어둠과 허위를 몰아내고, 사랑과 진리의 빛을 밝힘으로써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흔히 암흑이 광명을 피하고, 허위가 진실을 미워하며, 폭력이 자비를 싫어하고, 미움이 사랑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어두운 곳에서 악을 꾸미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우롱하며 폭력으로 정의를 억누르려는 악의 권세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한, 진리의 그리스도는 항상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언제나 박해를 받아왔고, 앞으로도 받게 될 박해의 근본 원인입니다. 물론 교회를 핍박하는 구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가지가 있읍니다.

① 로마의 폭군 네로는 **자신의 광적인 기분을 만족**시키기 위해 로마시가를 불사르고 크리스챤들에게 둘러씌웠는가 하면,

② 이조말기에는 사색당파의 싸움이 치열할 때, **남인파의 세력을 누르기 위한 정치당쟁**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무참히 희생되기도 했으며,

③ 2차대전 직후의 파시즘이나 나치즘이 그리스도교를 미워한 것이나, 오늘의 공산주의자들과 독재자들이 교회를 탄압하는 것은 그들의 **독재와 불의에 대한 교회의 정의의 부르짖음**이 싫고 두려워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계속되는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더욱 성장하기만 하는 까닭은 무엇이겠읍니까? 그것은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고, 진리앞에 거짓이 감추일 수 없으며, 사랑을 미움이 이길 수 없는 영원한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란 일시적으로는 악과 거짓에 쉽게 가담하지만, 때가 이르면 참된 것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인간의 밝은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최후의 승리는 진리편에 있다는 원리야말로, 우리 교회가 모든 종교중에 가장 많은 박해를 받아오면서도 가장 큰 종교로 발전할 수 있는 당연한 귀결을 낳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찌기 1,800여년전의 교부(敎父) 테르툴리아누스(Tertulianus)가 외친 말씀이 얼마나 옳았던

〈2면에 계속〉

숲정이 산책

〈1면에서 계속〉

가를 새삼 느낄 수 있읍니다. 그는 박해하는 로마인들 앞에서 "너희 관원들이 아무리 우리 신자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고문하며, 때리고 죽여도 좋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는 짓이 심하면 심할 수록 우리는 더욱 효과를 거둘 것이니, 그것은 **순교자의 피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씨앗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읍니다.

〈3〉 현대의 박해

혹시라도 오늘, 경찰이나 정부지도자들이 총칼을 우리에게 들여대고 "신앙을 버리겠소?" 아니면 "죽음을 택하겠소?"라고 묻는다면, 비겁하게도 "신앙을 버리겠소"하고 대답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택하겠소"라고 대답할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스스로 대답해 봅시다…. 그러나 걱정하지 맙시다. 오늘날 그들은, 결코 미련스럽게, "신앙을 버리겠소?"라든가 "죽음을 택하겠소?"라고 우직스럽게 묻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박해는 결코 어떤 유혈(有血)의 모습으로 보다는 무혈(無血)의 그것으로 자행되며, **물적 또는 육체적인 어떤 외적인 방법으로보다는 내적인 정신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박해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거스리는, 즉 **부정과 불의와 인권유린등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기묘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위 현대식 박해는 옛날에 비해, 보다 더 지능적이고 보다 더 악랄한 방법으로 이뤄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박해는 결코 종교의 어떤 교리신조를 거스려 신앙거부를 강요하는 식으로가 아니고, 멸리 에둘러 본시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된 신성한 인간성을 흐리게 하는 갖은 수단으로 자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때에 어떤 **특권 정치권력 유지의 수단방법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력유지에 방해되는 것이라면 어떠한 수단방법도 가리지 않고 인간의 기본권마저 마구 짓밟으며 횡포를 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간 공동선을 지향하는 정치·경제·문화·종교등 각 분야의 충고도, 협력도 용납될 수 없으며 다만 **권력유지를 위한 획일책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사회는 참으로 비참한 사회가 아닐 수 없읍니다.

이러한 박해는 특히 공산진영과 독재사회에서 전매특허품처럼 자행되는 방법으로서, 그런 사회에는 그야말로 **종교는 아편**일 수 밖에 없읍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국가사회에도 버젓이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내걸고 언론·집회·결사·신앙의 자유가 주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나 실은 완전 봉쇄된 사회로서 사람들은 자유스럽게 말할수도 들을 수도 없을뿐더러, 철저한 정보정치로 국민의 행동 하나하나를 일일히 사찰 감시하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민들을 위축시켜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우 대조적인 현상은, 이럴 수록 정치권력자들은, 늘 불안속에서, 행여 권력을 빼앗길세라 권력을 사수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히 순진하고 정의에 불타는 젊은이들을 크게 두려워하여, 신성해야 할 학원마저 정치도구로 만들어 성장하는 젊은 기상을 마구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젊음과 의욕과 꿈을 잃어버린 피식은 젊은이들을, 즉 국가 장래를 위해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무기력한 제2세 병신국민들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인간회복의 정신을 말살해 버리고, 인간의 양심 밑바닥부터 마비시켜버리는 것이 현대식의 악랄한 종교박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 신자들마저, 우선 살기 위해 "검은 것을 검다"고 못하고 "희다"고 하는가 하면, 권력과 금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권력자들에 아부하는 것을 마치 충성이라도 하는 것처럼 비겁해지거가 예사입니다. 잡은 권력이나 금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부정과 불의와도 타협하기를 서슴치 않을뿐더러 양심마저 헌신짝처럼 버리기를 예사로 합니다. (引用：全北新聞 78. 9. 8「朴大統領, 새마을 指導者와 환담」—○朴大統領=노풍에 병충해가 많다던데… ○金군수=병충해가 일부 생겼읍니다만 방제를 많이해 피해는 별로 없읍니다 ○朴大統領=올해도 풍년이 들것 같다는데… 신문·방송에는 병충해로 농사를 망쳤다고 하던데… ○金·李군수=작년보다 수확이 늘 것으로 예상합니다.)

〈4〉 오늘을 사는 순교정신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오늘의 순교정신을 살기 위해서는, 천주님의 자녀들인 우리마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읍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① 오늘날 이땅에는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잘 보장되어 있는가? 마음대로 성당에 갈 수 있고 전교할 수 있지 않은가? 쓸데없이 평지풍파를 일으켜 〈인권옹호〉니 〈민주회복〉이니, 종교인으로서 떠들 필요가 어데 있는가? 그것은 위정자들에게나 맡길 일이지….—한 술 더 떠서 그들은 순교선열들까지 모독합니다.

② 132년전 김대건 신부가 좀 더 머리를 썼더라면 교회는 얼마나 더 많은 발전을 가져왔을까?

③ 이누갈다 동정부부는 얼마나 미련한 자들인가?—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마저 미련하다고 생각할 사람들입니다.

④ 오늘의 세상은 어떻게 보면 〈독재자의 횡포부리기〉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쇼라도 구경하는 시대같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가톨릭 국가인 필립핀에서, 대통령이 신자인데도 국가질서를 위해 성직자와 수녀도 마구 투옥시키지 않는가? 우리나라에서 신부 몇 사람쯤, 학생이나 사회인사 얼마쯤 잡아 가둔다 해서 종교박해랄게 뭐냐?" 할 것이다. 이는 적당주의자들이 내세우는 편리한 이론이며, 독재 위정자들이 흔히 "그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 멀었다는"는 식으로 말하는 자기횡포를 합리화하는 구실로 쓰는 방법입니다.

현대식 박해 앞에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박해의 앞잡이들이며,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희광이(※ 회자수=會子手)들인 것이며, 이런 신앙인의 무리들이 바로 오늘의 생담자요 배교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유다인 것입니다.

권력에 아부하며 부정에 협력하고 불의에 타협하는 것은 결코 순교정신이 아닙니다. 불쌍하고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부당한 대우로 인간취급을 못받는 노동자나 농민들을 짓밟히고 병신이 되어가는 학생들을 보고도 무관심하는 사람은 순교정신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의와 진리와 동포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순교선열들과 같이 생명까지 바치는 사람이 참으로 순교정신에 사는 사람입니다. 망해가는 국가사회를 구하기 위하여, 시들어 가는 민족의 사기를 되찾기 위하여, 썩어서 마비되어 가는 백성의 양심을 바로잡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아 언덕을 올라야 참으로 순교정신을 사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직자와 수도자, 그리고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현양대회를 맞이하여 **우리의 몸을 깨끗이 불살라 귀한 이 민족을 새로이 밝히는 횃불이 되어야 하겠으며, 필요하다면 민족정신의 부흥을 위하여 새로운 피로 제물을 바치기로 순교선열 앞에 경건하게 머리숙여 맹세**하도록 합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애국의 길이며, 순교정신의 얼을 잇는 영예로운 길입니다.

「밀 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요한12장24절)

□이색 호소□

아버님을 찾습니다

「아버님을 찾습니다. 아버님을 두 번이나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읍니다. 도와주시는 분에게는 정성을 다해 사례하겠읍니다.」이 처절한 호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읍니다. 아래의 글을 읽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숲정이 편집실…③ 5098〉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진은 없어진 묘소이고
아래 그림은 묘소의 위치임.

□ **사건의 내용** 파티마 성당의 成아가다(52세)씨의 아버님 묘가 없어졌다. 금년 추석절에 성묘를 간 망인(成요셉)의 아들 成인철씨에 의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누군가의 착각에 의해 成요셉씨의 무덤이 없어진 것이다. 아마 이장을 하기 위해 무덤을 옮긴 분이 남의 묘를 잘못 옮긴것 같다. 68년도부터 관리를 해온 김용진(누가)씨에 의하면 금년 한식을 전후해서 「60대 여자가 인부둘을 데리고 와서 **임실군 신덕면 조월리**로 옮긴다」며 이장했다 한다.

故 成요셉씨는 67년 전동의 이헌재 회장한테 대세를 받은 분으로, 묘소에는 나무 십자가의 표지가 있었다. 물론 나무십자가 뒷면에는 아들 成인철씨의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있었다. 成인철씨는 금년에 들어 신병을 앓기 전에는 매년에 7~8번씩 고인의 무덤을 찾았다한다. 이장을 위해 산까지 사놓고, 그러다보니 묘비에 신경을 덜 써서 생긴 사고인듯 하다.

□ **유족의 말** 「묘를 옮겨간 분도 조상을 위하는 좋은 뜻으로 일을 한건데, 묘소를 찾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탓하지 않겠읍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이장하는데 들은 비용까지도 제가 책임지겠읍니다. 제발 아버님의 유해를 찾을 수 있기만을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오.」

□ **문제점과 그 대책** 교회 묘지의 일부가 잘 정돈되지 못한 상태가 근본 원인이고, 묘지관리에 있어서도 이장의 경우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관리인이 기록할 수 있어야 하겠다.

□ **교우들에게의 호소** 이 일의 해결을 위해 모든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경비 보상까지 해주는 만큼 적극 협조해서 한 가정의 뼈아픈 고통을 덜어주어야 하겠다.

결 (축) 혼

김종호씨 차남 유 태 군
전창현씨 장녀 옥 순 양
일시 : 78. 10. 3 오전 11시
장소 : 전동 천주교회
주례 : 전 대 복 신부

◇경운기 · 분무기 전자동 탈곡기
트랙타 · 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 가정용 목욕탕, 온수,
난방 시설 및 수리
한국 流 온수 온돌 공사
(정읍대리점)
정읍전화 주간2719번 야간 4195번
대표 : 고아오스딩
※교우분들께는 1할을 할인해 드리고 있읍니다.

★ 양심을 찾자 ★
현 대 칼 라 특 약 점
카메라 대여 학교앨범 각종 사진 출사
중 앙 사 진 관
이리시 창인동 중앙시장 사거리
이리여고 입구 전화 7901
한 원 규 (야고버)

직원모집 공고
1. 모집인원 ○명
2. 자 격
가. 연령 55세미만의 여성
나. 외모단정하고 음식솜씨 있는분
3. 제출서류
자필이력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4. 제출기간 78. 10. 10. 17시까지
5. 면접시간 78. 10. 11. 오전 10시
전주가톨릭센타 전화 ③ 3498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선사합니다□
파 티 마 의 상 실
최 춘 자(로사리아)
전주시 중앙동 3가 28번지
(구라파 제과점 옆)
전화 ② 6219

개 업 안 내
시내 중앙동에서, 지난 7년 경력으로 교우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하기 장소에 개업하였읍니다.
앞으로 교우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용 희 (가브리엘)
☎ 2-6222 (전북신문 사거리)
에 이 스 양 복 점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제3차 순교자 현양대회에 적극 협조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주교구 평협
   ① 미사헌금 841,820원 ② 독일 마인쯔교구 사무처장 마이어 신부 369,240원(1,500마르크)
   ③ 글짓기와 교리 경시대회의 상장 및 상품을 안 찾아간 분은 평협 사무국에 와서 찾아가시기 바람
   □ 글짓기 입상자…**최우수상** : 한정현(복자) **우수상**〈일반부〉 최우남(임실), 〈고등부〉 김영숙(숲정이), 〈초등부〉 안경학(복자) **입상**〈일반부〉 윤갑남·은경순(노송동), 박옥님(용안), 〈고등부〉 양기완(팔마), 〈중등부〉 이옥(노송동), 〈초등부〉 서선희(중앙), 김정현·정혜경(숲정이), 정윤모(파티마)
   □ 웅변대회 입상자…**최우수상** : 유마리아(교창) **우수상**〈일반부〉 이귀님(전동), 〈고등부〉 주철연(전동), 〈중등부〉정미경(창인동), 〈초등부〉 정인숙(창인동)
   □ 성가 경연대회 입상 본당…**최우수상** : 창인동 **우수상** : 중앙, 둔율동 **입선** : 전동, 복자, 원명동
   ※ 대회시 습득물은 교구청으로 보내주세요…전자시계 주운 분이 있다는 소리 들었읍니다.
   ※ 묵주 하나 주웠읍니다
2. 오늘은 군인주일…군종신부님들의 사목활동과 군인 자녀들을 기억해서 정성껏 헌금합시다
3. 전국 올뜨레아…3일〈화〉 출발 : 전주…오전 6시(가톨릭센타), 군산…5시 반(옥구 군청), 이리…5시 반(창인동 성당) ① 참가 희망자는 교구 사무국이나 본당 신부님께 문의 바람(참가비 6,000원)
   ② 귀가시 절두산등 순교성지와 용인 자연농원을 들려서 옴
4. 지성인 교리…6일〈금〉 오후 8시, 중앙성당, 강사 : 박도식 신부 주제 : 인생은 부조리한가?
5. 교구 학생의 날 행사…8일〈일〉 오전 9시, 해성학교 대상 : 교구내 중·고등학생
   ※ 내용…만남의 시간, 미사와 특강, 체육대회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 용 복
보좌 신부 정 승 현
보좌 신부 범 영 배
사도 회장 이 북 석

1. 축! 첫 영성체 : 1일〈일〉 공식미사
2. 프란치스꼬 3회 : 1일〈일〉 오후 1시 30분
3. 복사단 야유회 : 3일〈화〉 오전 9시
4. 어머니 합창단모임 : 5일〈목〉 오전 10시
5. 성심부녀회 모임 : 6일〈금〉 오전 11시
6. 로사리오 성월 : 10월 한달동안 저녁미사 후 묵주의 기도 있음
7. 미사후 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8. 대학생회 임원개선 : 회장—박창수(스테파노) 부회장—김요한(요한) 부회장—박찬일(베로니카)

(노송동)

전화 ② 7032

주임 신부 공 아 영
보좌 신부 권 옹 희
사도 회장 김 성 록

1. 애령회와 학생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성모회 월례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본당 주보성인 축일 : 10월 4일 저녁 7시 축일미사 방지거 삼회 : 입회식과 서약식
4. 본당소풍 : 10월 8일 9시 출발, 덕진 왕능 현지에서 오후 3시 미사봉헌
5. 재속 청년회 피정 : 10월 7~9일, 2박 3일
6. 미사시간 변경
   주일—오전 9시반, 오전 10시, 오후 7시
   평일—월요일 오전 6시반, 화·수·목·토 저녁 7시
   어머니미사와 어린이미사는 종전과 같음

□ 지난주 봉헌금 : 34,73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 석 기
보좌 신부 강 덕 행
사도 회장 유 제 상

1. 젊은이들의 모임 :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미사와 성가 있음. 많은 참석 바람
2. 성시간 회원모집 : 1년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8시~11시(성체강복, 참회예절)
3. 오늘은 군인주일. 장병을 위한 특별헌금에 협조를…
4. 3일은 본당 축일행사가 있읍니다
   미사후 구역장님, 공소회장님 모임 있읍니다
5. 가정방문에 협조해 주신분 감사합니다
6. 타 본당에 교적이 있는 분은 교적을 빨리 이적하셔요

□ 지난주 봉헌금 : 18,720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 종 택
사도 회장 조 성 호

1. 10월은 로사리오 성월 : 매 미사후 공동성월 바칩니다
   10월은 전교의 달 : 모든 신자는 전교에 힘씁시다
2. 오늘은 군인주일 : 국토방위에 수고하시는 국군장병들을 위해 정성껏 특별헌금을 합시다
3. 사도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사제관 회의실)
4. 성우회 월례회 : 다음주일 공식미사후(박상기형제댁)
5. 순교자 현양대회 행사 수상자
   ① 교리 경시대회 : 중등부—개인상 장미현
   고등부—입상 김숙희, 이판기
   ② 글짓기 : 일반부—최우수상 한정현
   주일학교—우수상 안경학
   ③ 성가경연대회—3등
6. 베델성서 연구회 수강자 : 다음주에 발표
7. 4지구 주일학교 체육대회 : 해성학교 응원과 협조
8. 1일교장 오늘 : 김방웅 형제 다음주 : 김응식형제

□ 지난주 봉헌금 : 138,640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 현 택
사도 회장 박 장 춘

1. 사도회 월례회 : 10시 미사후
2. 국민학교 체육대회 : 10월 3일 (해성학교)
3. 반상회 : 10월 3일(1반), 10월 4일(2반) 10월 5일(3반), 10월 6일(4반)
4. 중·고생 임원회 : 10시 미사후
5. 축! 환영 및 감사 : 새로 전입신자 (67세대)
6. 신축 헌금 현황 : 다음주에 발표

□ 지난주 봉헌금 : 21,006원 감사합니다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이 강 노

1. 사도회 월례회 : 10월 8일 공식미사 후
2. 누갈다 부녀회 월례회 : 10월 7일〈토〉
3. 젊은이 모임 : 10월 1일 오후 3시(유치원 강당)
4. 누갈다 유치원 운동회 : 10월 3일 (해성학교 운동장)
5. 성지참배 : 요안회 주최 오늘 6시 출발 (미레네→현충사→은진미륵불)
6. 전국 올뜨레아 대회 : 10월 3일 오전 9시

□ 지난주 봉헌금 : 53,595원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이 순 성
사도 회장 유 석 종

※ 10월 로사리오 성월·교무금 봉헌의 달
1. 사도회 : 저녁미사 후
2. 성화회 : 10시 미사후
3. 유아세례 : 2시 미사후
4. 젊은이 피정 : 14일~15일 프란치스코 피정센타
5. 매 금요 저녁미사 : 성령 기도후 (8시 20분)
6. 주일학생 시내 본당 체육대회 : (3일 해성)

※ 환영 : 영세 교우

(파티마)

전화 ②7249

주임신부 문 정 현
사도회장 채 수 현

☆ 10월은 로사리오 성월 : 매 미사전에 로사리오 기도
1. 사도회 및 각 구역장 정기총회 : 저녁 미사후 회의실
2. 미사시간 변경 : 10월 8일부터 저녁 미사 오후 7시
3. 성지순례 : 희망자는 미사후 마감 접수
   10월 3일 10시 본당출발
4. 학생회 모임 : 중·고등 학생 교리실에 따로모이세요
5. 교무금 : 10월은 교무금 완납의 달
   지난주 납입자 : 김용우, 장용근(1만원), 강수경(1만 2천원) 이진희(5천원)
6. 가정방문 : 10월 6일까지—주택, 효자 1가
7. 수녀원 증축 신입 : 다음주에 발표

□ 지난주 봉헌금 : 10,851원

* 인쇄·전 주 보 광 출 판 사 ☎ ③ 3272